

재의 수요일 예배

집례자

I. 입례와 경배

입례찬송 254. 내 주의 보혈은 다같이

1. 내 주 의 보 혈 은 정 하 고 정 하 다
 2. 약 하 고 추 해 도 주 께 로 나 가 면
 3. 날 오 라 하 심 은 온 전 한 믿 음 과
 4. 큰 죄 인 복 받 아 살 길 을 얻 었 네
 5. 그 피 가 맘 속 에 큰 증 거 됩 니 다

내 죄 를 정 케 하 신 주 날 오 라 하 신 다
 힘 주 시 고 내 추 함 을 곧 세 어 주 시 네
 또 사 랑 함 과 평 안 함 다 주 려 함 이 라
 한 없 이 넓 고 큰 은 혜 사 풀 어 주 소 서
 내 기 도 소 리 들 으 사 다 허 락 하 소 서

내 가 주 께 로 지 금 가 오 니

십 자가 의 보 혈로 날 씻 어 주 소 서 아 멘

예배 기원 집례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재의 수요일을 맞아서, 먼저 저희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새롭고 정직한 영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영혼과 육신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8.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다같이

1. 샘 물과 같 은 보 혈 은 주 님 의 피 로 다
2. 저 도 적 회 개 은 하 백 고 서 보 영 님 혈 에 씻 었 네
3. 죄 속 함 반 은 신 국 피 올 라 가 더 생 사 랑 은 연 겠 네
4. 날 정 케 하 천 국 을 보 니 그 랑 한 없 네
5. 이 후 에 친 신 국 을 라 가 더 좋 은 노 래 로

보 저 샘 살 날 혈 도 솟 동 구 에 적 듯 안 속 죄 같 하 반 하 를 은 는 는 신 씻 이 피 사 은 으 몸 권 세 을 늘 정 죄 한 늘 하 씻 없 찬 찬 게 기 아 송 송 하 되 원 크 하 겠 하 도 겠 네 네 다 네 네

정 죄 한 늘 하 씻 없 찬 찬 게 기 이 송 송 하 되 원 크 하 겠 하 도 겠 네 네 다 네 네

보 저 샘 살 날 혈 도 솟 동 구 에 적 듯 안 속 죄 같 하 반 하 를 은 는 는 신 씻 이 피 사 은 으 몸 권 세 을 늘 정 죄 한 늘 하 씻 없 찬 찬 게 기 이 송 송 하 되 원 크 하 겠 하 도 겠 네 네 다 네 네 아 멘

고백의 기도 다같이

다같이: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으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머리에 재를 쓰고 참회합니다.

주님,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거짓과 불의를 따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저버리고 악한 길로 줄달음치는
 이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집례자: 잠시 침묵 가운데 각자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죄의 확신 집례자

집례자: 무릇 시온에서 슬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이사야 61:3).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악된 옛 삶은 지나가고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II. 말씀과 응답

조명을 위한 기도 집례자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시사, 이 시간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가 다 기쁨으로 듣고, 밝히 깨달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답송 366장 1절 1,4단 다같이



구약성서 봉독 요엘 2:1-2, 12-17 집례자

집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성서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1.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12.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13. 제사장들아 너희는 굶은 베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굶은 베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으로다
14.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16.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17.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으로다

집례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찬송가 20장 1절 다같이



서신서 봉독 고후 5:20-6:2 집례자

집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20-6:2 까지입니다.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집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찬송가 20장 3절 다같이

은 천 지 창 조 하 시 던

그 말 씀 힘 입 어

영 원 하 변 치 않 는 줄

나 믿 사 옴 니 다

복음서 봉독 마 6:1-6, 16-21 집례자

집례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집례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주님, 감사합니다.

III. 재 의식

사순절 준수의 요청 집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헌신적으로 지켜왔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위하여 회개와 금식,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며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때입니다. 동시에 여러 죄를 지은 사람들이나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회개와 용서를 통해 교회로 돌아와 화해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선포된 자비와 용서를 상기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회개를 바르게 시작하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성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한다.

재에 대한 기도 집례자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흠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재를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실존의 징표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총만이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 의식 집 레 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대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인생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시편교독 시편 51:1-17 다 함 께

인도자: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 중: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인도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 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인도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회 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인도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회 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인도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회 중: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인도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회 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인도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 중: 하나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인도자: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회 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IV. 위임과 파송

위임의 말씀 집례자

사랑하는 언덕교회 공동체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파송을 받아 사순절 끝까지 기도와 금식과 말씀묵상을 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순절 여정의 동행공동체가 되십시오.

파송찬송 144. 예수 나를 위하여 다같이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4. 아름답다 예수여 나 의 좋은 친구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저 무지한 사람들과 메시아 죽였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 공로아 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셨네

공동축복기도 다같이

저희를 중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성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의 여정에 동행하는
 언덕교회 예배 공동체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